

2012 새해 소망

다사다난했던 2011년 신묘년이 가고,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고성지역 주민들은 새해에는 가족들이 보다 건강하고, 직장과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했다. 고성지역 각계각층 주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아봤다.



어민 하해성·강순옥 부부 “새해엔 도루묵 많이 잡히기를..”

거진읍에 거주하며 거진에서 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성호 선주 하해성(43세)·강순옥(41세) 부부는 “올해 도루묵이 많이 잡히지 않아 고단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데, 새해에는 도루묵을 포함한 다량의 어종으로 풍어를 이뤄 만선 깃발을 꽂고 항포구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길 소망한다”고 했다. 또 “아들과 딸이 씩씩하고 밝게 크고, 부모님과 온 가족이 항상 건강하길 바란다”고 소망을 밝혔다.

“신나게 장사할 수 있는 새해됐으면”

수타피자집 운영 박관철씨

간성을 재래시장입구 새마읍 금고 앞에 위치한 수타 피자 전문점 ‘피자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박관철씨(46세)는 “지난해는 고성군 경기가 바닥인데다 원재료 값을 비롯한 물가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었다”며 “새해에는 물가가 안정되고 고성군 경기가 되살아나 아무 잡념 없이 신나게 장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또 “장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새해에도 소비자들을 위해 좋은 재료와 한결같은 정성으로 맛있는 피자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내와 아이들 건강하기를... 금강산관광 재개”



거진우체국 집배원 김광식씨

현내면 대진리에 거주하며 거진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광식씨(46세)는 “우편물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안전사고가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아내와 2남 1녀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또 “화진포 일대 리조트 등의 관광단지가 빨리 들어서고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행복 가득한 새해 ... 결혼할 남자친구 생겼으면”



간성읍사무소 이승희씨

간성읍사무소 총무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희씨(30세)는 “새해에는 우선 고성군 전체에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일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개인적으로는 남자친구가 없는데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입학선물로 핸드폰 갖고 싶어요”

“아빠가 늘 곁에 함께 있었으면”

간성초교 김초래·신가연 어린이

간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김초래(7세, 왼쪽) 어린이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입학선물로 핸드폰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간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신가연(7세) 어린이는 “아빠가 타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 자주 못 보는 데 새해에는 아빠가 늘 곁에서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